사스(SARS)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사스의 확산

○ 사스로 인한 파장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사망률 5%: The Economist 2003.4.28),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지속되고 있음

- 전세계의 피해액은 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보완적 무역관계에 있는 지역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사스가 발생한 타지역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전염성질환이 경제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외자유치에는 더욱 큰 충격을 주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피해규모

○ 사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내에서 사스가 발생하는 경우의 직접적인 손실과 중국 등의 경제적 침체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피해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전염사례에서와 같이 외국인 투자여건의 변화 측면에서도 조망할 수 있을 것임

- 파급효과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스의 '지속기간'과 '한국에서 사스가 만연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임

○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발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수출액 손실 20~30억달러(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GDP 성장률은 0.3~0.4%포인트 하락하고, 실업률은 약 0.1%포인트가 증가하는 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

-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며, 내수위축에 따른 현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음
- 한국의 동아시아(중국·홍콩·싱가폴·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22%(2003년 2월 기준)에 달하므로 향후 상대국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수출과 상대국의 공급차질에 따른 수입감소 등 경제적 교란은 심각해질 것임

○ 사스만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수요감소뿐만 아니라 생산부문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며, 악화될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철수와 신규투자의 감소 등이 뒤따르게 될 것임

- 사스의 발병사례가 가장 많은 중국의 예와 같이 수요·생산차질에 따른 경기침체, 관광산업의 급속한 위축 등 일차적인 피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 외국기업은 국내의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피해, 제3국 수출수요 감소, 모기업의 투자감소 등을 겪게되므로 기업의 철수 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상품(물류)·노동력·자본 등의 이동에 심한 타격을 주어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이 초래될 것임
- 국내 경제기반의 위축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게될 것이므로 해외차입의 차질 등 금융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임

외국인투자 여건

○ 사스발생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패턴은 기존의 수익성·안전성 평가보다 투자하는 국가의 안전성을 더욱 중시하는 구조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 사스의 본질과 감염경로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사스에 의한 경제적 충격은 흡수될 것이며 외국인투자는 시장규모와 저임을 중시하는 기존의 구도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투자국의 안전성 비중은 급격히 변화되지 않을 것임
- 그렇지만 이러한 질병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외국인 투자가는 수익보다는 안전성에 높은 비중을 둘 것이므로(risk-aversion) 외국기업의 철수가 시작되고 해외투자가 동아시아지역에서 이탈하여 타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우리나라는 '북핵' 관련 조건에 더하여 사스의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여건을 FDI 위축의 위험신호로 받아드려야 할 것임

- 저간의 외신을 보면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가 아닌 전체 동아시아를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보도하고 있으므로 위의 추론을 뒷받침
- 외신에 대한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정도로(조선2003.4.28) 진단·보안체계가 철저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자신을 가지고 한국의 투자메리트를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함
- 그렇지만 국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타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대응방안은

○ 현 시점에서는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역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바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함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연계된 방역체계(사스종합관리대책 참조)를 빠른 시간내에 구축
- 패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는 동시에 해외에 대해서는 외신을 이용하여 한국이 발병지가 아니며, 또한 안전하다고 홍보(베트남 사례 참조)
-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내·외국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감하거나(말레이시아 사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등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활용(싱가폴의 사례)
- 수출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KOTRA 등 수출입 관련기관의 정보를 집중하고 관련 서비스(예: KOTRA 사이버상담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
-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질병과 같은 위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
- 나아가 일본과 같이 상징성을 가진 해외의료지원을 통하여 인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전략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은 국내·해외여행객이 주로 왕래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접촉이 빈번한 서비스업종이 많으므로 방역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함

- 대인접촉이 설득력이 있는 질병의 파급경로이며, 중국 베이징의 경우에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종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더욱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지해명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